

#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 식당의 급식운영 고찰 및 급식비용의 추정

차진아 · 한복진

전주대학교 문화관광학부 전통음식문화 전공  
(2003년 9월 4일 접수)

## A Study of Operation of Sungkyunkwan(成均館) Dining Room and Estimation of Food Cost

Jin-a Cha and Bok-jin Han

Dept. of Traditional Food Culture, School of Culture & Tourism, Jeonju University

(Received September 4, 2003)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operation systems and estimate the food cost of the dining room(進士食堂) in Sungkyunkwan, the highest national education institute of confucianism in the Chosun dynasty. 『the true records of the Chosun dynasty(朝鮮王朝實錄)』, 『Taehak-Ji(太學志)』 and 『Banjungjabyoung(泮中雜詠)』 were reviewed. Because the foodservices for the students were related to the Wonjeom(圓點) regulation, the qualification for the national examination(大科), Chosun dynasty government took the much considerations for the operation of the foodservice. Especially, YangHyunGo(養賢庫) was established to support the finances for Sungkyunkwan and took an important role to procure all the supplies including food. The budget of the foodservice was on a large scale. Over 960 suks(石) of rices were needed for the 200 students, and it can be converted as 276,480,000 won for the current price and the food cost per meal can be estimated about 4,000~5,000 won.

**Key Words** : foodservice, food cost, Sungkyunkwan dining room, YangHyunGo

### I. 서론

조선왕조의 성균관은 두 가지 주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지배사상인 주자학을 연구·보급하는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기능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주자학 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의 관리를 양성하는 관리양성소로서의 기능이었다<sup>1)2)</sup>.

조선초기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은 전제(田制) 개혁과 유교적인 농본 정책에 힘입어 고려말에 비해 훨씬 풍요하였으며 신지배층은 지배 이념의 강화와

재생산을 위해 관학인 성균관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sup>3)</sup>. 조선조 성균관은 관학 체제를 정비하고 신진사대부들의 정치적, 이념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기능을 담당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의 유례는 고구려의 태학, 신라의 국학, 고려의 국자감에서 조선조의 성균관으로 이어지는데 이중에서도 성균관은 그 사회적 위상이나 경제적 기반에 있어 가히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원형을 이룬다고 할만큼 중요한 역사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sup>4)</sup>.

조선초 한양의 인구가 20만 내외였던 점을 감안하면 성균관은 200명 정원의 유생들을 교육하는 대규모의 캠퍼스였으며, 유생들은 공동생활과 교육을 통해 단순한 지식전수만이 아닌 이념과 도덕을 겸비한 관료로서의 엄격한 교육 과정을 거쳤다. 15세기 무렵 성균관의 예산은 국가 재정의 절반이 투입되는 막대한 규모를 이루었다<sup>5)</sup>.

조선 초기 관학 중흥책에 힘입어 성균관의 위상은 지속적으로 격상되어 96칸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건축과 부속건물의 추가 증축이 이루어졌으며, 조정에서는 성균관을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학정책 확대, 교관수의 증원, 성균관 재정의 보완 확충 등에 주력하였다<sup>6)</sup>. 또한, 성균관에서 생활하는 유생들을 위한 전용 기숙사 및 식당과 함께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양현고(養賢庫)를 두었으며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sup>7)</sup>.

성균관에서 유생들을 위해 식당을 설치하고 음식을 제공한 것은 국내 학교급식의 역사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성균관에서의 급식은 유생들의 과거시험의 자격을 좌우할 만큼 성균관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성균관에서 필요한 교육 재정 중에서도 급식비용의 확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성균관에서의 급식은 나름대로의 관리 원칙과 함께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급식예산의 확보와 그 비용의 관리 또한 엄격한 국가의 통제를 받았다.

그간 국내 학교급식의 시작점을 한국전쟁 이후 외국의 원조로 시작한 구호급식기인 1950년대 무렵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500여년이 앞선 성균관에서의 급식을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원형이자 그 시초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들을 위한 식당에서의 급식 운영에 대해 고찰하고 관련 사료를 통해 당시 소요된 급식비용의 대략적인 규모를 추정하고자 함으로써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학교 급식관리의 원형에 대한 역사적 단초를 마련하는데 있다.

성균관에서의 급식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주로 고찰한 문헌 및 사료는 영조대 성균관 유생이었던 윤기(尹愷, 1741~1826)가 저술한

『반중잡영(泮中雜詠)』을 이민홍이 완역하여 역주를 첨가한 완역본<sup>8)</sup>, 성균관 대사성(大司成)이었던 민중현(閔鍾顯)이 저술한 『태학지(太學志)』<sup>9)</sup> 및 CD-ROM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sup>10)</sup>이었다.

『반중잡영』은 영·정조 시대의 학자인 윤기가 영조 계사년(1773년) 생원시에 합격하여 성균관 유생으로써 20여 년간을 성균관에 머물면서 보고 느낀 것을 220여 수의 시로 표현한 것으로 오늘날 성균관의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자료이다<sup>11)</sup>. 또한, 정조 9년(1785)에 편찬된 『태학지』에는 성균관의 건물 배치도 및 성균관 제도의 변천과정, 유생의 활동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어서 조선시대 성균관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성균관의 식당 및 식당재정을 관장하던 부서였던 양현고(養賢庫)에 관한 내용을 검색하였다.

또한, 그간의 성균관 교육제도나 양현재정에 관한 선행 연구<sup>12)13)14)</sup>들을 고찰하였으며 이상과 같은 문헌과 사료, 연구 자료 및 검색결과 등을 종합하여 성균관 식당에서의 급식 운영에 관해 고찰하고 양현 재정의 규모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 II. 본 론

### 1. 성균관 식당의 급식관리

조선초기에는 국학의 기틀을 다지고 인재를 양성하고자 성균관을 수리하면서 식당을 새로 지었으며 식당 및 교육에 필요한 여러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양현고를 설치하고 그 체계를 정비하였다.

성균관 내 유생들의 식사 및 교분을 위한 모임의 장소로 사용되었던 식당은 태종 13년(1413년) 당시 예조 판서이던 황희의 건의로 신축되었는데, 실록에 나타난 당시의 식당 신축 배경은 다음과 같으며<sup>15)</sup>, 이러한 기록으로 보건대 성균관 식당은 조선초기에 신축되어 오늘날 대학급식의 본격적인 효시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예조 판서 황희가 아뢰었다. “성균관의 동·서재가 험작하고 학생이 너무 많으니 병이 날까 걱정됩니다. 청컨대 개수(改修)하여 짓고 또 식당(食堂)도 영건(營建)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균관에 기숙하는 유생들의 공궤(供饋; 먹을 것을 주고 뒷바라지를 하는 일)는 따로 양현고(養賢庫)에서 담당하였다. 양현고는 본래 고려시대의 국가 교육기관이었던 국학(國學)에 설치한 학생 후생재단으로 고려 예종 14년(1119년)에 관학(官學)의 진흥과 재정적 뒷받침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는 조선조 성균관에도 그대로 이어져 성균관 관학 유생의 공궤를 위한 재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성균관의 부속기관이면서 중앙관청 내 재정부서인 호조(戶曹)의 지휘감독을 받았다<sup>16)</sup>. 양현고는 성균관 유생의 미두(米豆) 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행정과 관련된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반미(飯米; 밥), 조찬(助饌; 반찬), 빙(氷; 얼음), 유탄(油炭; 연료), 지필묵(紙筆墨; 필기도구), 향(香), 석자(席子; 자리) 등의 생활필수품 일체를 공급하는 일체를 맡았다. 그 중에서도 반찬이 되는 조찬은 경비문제로 인하여 조선조 내내 논란이 여러차례 발생하곤 하였다. 반주잡영의 18수에도 양현고가 선비들을 공양하기 위한 기관이며 이곳에 팔도에서 바치는 많은 공물이 쌓인다고 읊고 있다<sup>17)</sup>.

養賢庫貯養賢需 양현고에는 어진이 기르려는 물품이 쌓였으니  
 設置規模盛矣乎 설치한 규모는 대단도 하구나  
 我國八方惟正供 우리나라 팔도에서 바치는 공물은  
 也應半向此中輸 아마도 반쯤은 이곳으로 들어오리라.

역주: 양현고는 고려 때에 세워진 것이다. 지금은 벽송정 동북쪽에 있는데 많은 선비들을 공양하기 위한 것이다. 세상에서는 우리 나라 재물의 절반이 이곳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양현고는 성균관 식당의 급식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 역할도 함께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관리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따로 두기도 하였다. 실록에 의하면 태종 12년(1412년)에 예조에서 성균관 내 양현고의 체계를 정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sup>18)</sup>.

양현고(養賢庫)는 성균관의 유생들을 지응(支應, 받드는 일)하는 여러 가지 일을 맡았으니, 앞드려 바라건대, 성균 주부(成均 注簿) 및 박사(博士) 1인, 학유(學諭) 1인에게 양현고의 사(使)·승(丞)·녹사(錄事)를 겸하여 오로지 그 일을 맡아서 날마다 본고(本庫)에 근무하게 하여, 일의 크고 작은 것이 없이 아울러 친히 감독하게 하소서.

이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현고는 태조 때에 2명의 판관(判官)을 두고 관리케 하였으나, 태종과 세종대에 개편을 거듭하면서 전적(典籍), 박사(博士), 학정(學正)이 양현고직(養賢庫職)을 겸하게 하였다<sup>19)</sup>. 이러한 양현고 근무 관리들은 성균관에서의 급식 재정을 비롯한 교육에 필요한 제반 관리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현고 재정에 대한 회계는 호조(戶曹)의 관리감독 하에 있었는데, 호조에서 양현고에 지원하였던 물품 중 급식과 관련된 기록을 적은 탁지지(度支志)<sup>주1)</sup>에는 관학 유생에게 필요한 찬(饌), 석수어(石首魚; 조기), 염(鹽; 소금) 등의 현물을 호조 경비사(經費司) 전례방(前例房)에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sup>20)</sup>. 이 중 찬(饌)은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석수어(石首魚), 염가(鹽價)는 년 4회에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였다<sup>21)</sup>. 또한 쌀, 콩은 풍저창(豐儲倉)으로부터 수령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양현고 자체가 풍저창에 흡수되었다가 다시 양현고로 독립하기도 하여 양현고 조직 자체가 호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수령된 현물은 용도에 따라 이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호조의 회계사(會計司)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양현고에서 사용된 전곡(錢穀)에 대한 회계(會計)책을 춘하추동의 첫달인 음력 정월, 4월, 7월, 10월의 각 10일에 왕이 직접 열람하였다<sup>22)</sup>. 이를 위해, 양현고의 관원이 매월 5일 이전에 현물의 사용 내역을 호조의 담당직원에게 보고하면 회계책임자(회계사)가 이를 검토하는 제도가 있었다. 양현고에서는 매 3개월마다 호조의 회계사에게 종합 보고를 하였는데 이는 일종의 회계감사제도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회계감사 외에도 양현고는 회창(回倉)이라고 하는 정기적인 재고조사를 받았다. 호조의 관할 하에 있는 각 창고는 매월말 호조의 낭관(郎官)과 감찰(監察)이 순방하여 재고조사를 실시하는 규정이 있었으며, 양현고 역시 광흥창(廣興倉)의 회창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sup>23)</sup>.

이 외에도 인수한 물품에 대한 기장(記帳)을 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를 치부(置簿)라고 하였다. 탁지지의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된 모든 장부나 문서는 매 사계의 초하루에 회계사가 면밀히 조사하여 만일 누락된 기록이 있으면 해당 관원을 감

봉처분하고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 2. 성균관의 급식 품목

성균관 유생들에게 제공된 급식품목은 팔괘(八簋)라 하여 8가지 품목이 제공되었다<sup>24)</sup>. 괘(簋)란 분디 곡식을 담은 제기의 일종으로서 외양은 원형이고 음식물을 담은 내부는 방형으로 각져 있는 그릇을 말하는 것으로 '팔괘'란 성균관 유생들이 사용한 여덟 개의 음식그릇 또는 여덟 가지의 음식을 말한다. 팔괘는 밥, 국, 장, 김치를 비롯하여 나물, 젓갈, 좌반, 생채의 8가지 음식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좌반(佐飯)이란 밥의 옆에 따른다는 의미로써 밥반찬으로 짝짝하게 만든 조기, 고등어와 같은 염장 생선류를 일컫는데 성균관 재정상 매끼니마다 제공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좌반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성균관 유생들의 식사는 삼첩반상이 기본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성균관 유생들을 위한 각종 재원은 호조에서 담당하여 조달하였고 성균관에 양현고를 설치하여 호조의 감독하에 두었다. 호조에서는 학전(學田)에서 거두어들이는 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성균관 양현고에 정기 및 수시로 현물을 지급하였다. 성균관 유생들의 밥과 찬을 위한 급식 물품은 매년 양현고에서 계획을 세워 정기적으로 지급받았으며 각종 별공이나 연회가 있을 때에도 수시로 여러 가지 품목이 제공되기도 하였다.

이 중에서도 유생들의 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식재료는 쌀과 대두로써 200명 정원의 유생들의 식사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쌀과 대두를 조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세조실록에는 세조 4년(1458)에 성균관 대사성 이승소가 유생 200명을 1년간 공궤하는데 960석이 소요되는데 당시 양현고에서의 전세(田稅) 수입은 600석이 되어 200명의 식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sup>25)</sup>.

이승소(李承召)가 글[書]로써 아뢰기를, “대학(太學)은 현사(賢士)의 관(關)이라 풍교(風敎)를 먼저 하여야 합니다. 당(唐)나라의 태종(太宗)은 생원(生員)을 증광(增廣)하여 3천 2백에 이르렀는데, 지금 국학(國學)에서 기르는 것은 겨우 2백입니다. 신이 2백 학생의 1년 비용을 계산하니 9백 60석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경비(經費)에 있어서 구우일모(九牛一毛)일 뿐인

데, 유사(有司)가 한 해의 흉년으로써 감(減)을 주청(奏請)하여 단지 1백을 기르게 하니, 성상(聖上)의 숭학(崇學)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또 구법(舊法)에는 사부 학당(四部學堂)에 모두 음식이 있었는데, 근년 이래로 권도(權道)를 따라 다 파(罷)하였고, 이제 또 국학의 음식을 감하니 치체(治體)에 어떻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양현고(養賢庫)의 급년에 수납하는 전세(田稅)는 6백여 석이라 하니, 만약 3백여 석을 더하면 족히 2백 학생의 한 해의 음식을 지탱할 것입니다. 수백 석(數百石)의 비용을 아껴서 뒷사람의 의논을 부름은 옳지 못하니, 앞드려 바라건대 다시 예사(審思)를 두소서.”

이는 조선 후기 무렵에도 거의 유사한 규모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탁지지(度支志)』에는 양현고에서 성균관 유생 공궤를 위해 미(米) 972석, 대두(大豆) 297석을 보냈다고하는 기록이 있으며<sup>26)</sup>, 영조 18년(1742) 성균관 수용 인원이 126명으로 이들을 공궤하기 위해 큰달(大朔)에는 미(米) 83석 2두, 대두(大豆) 25석 3두, 작은달(小朔)에는 미(米) 80석 5두, 대두(大豆) 24석 5두로 연간 미(米) 988석, 대두(大豆) 302석 6두를 호조에서 양현고에 보냈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sup>27)</sup>.

이처럼 쌀과 대두는 식재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품목이었고 쌀은 매끼니 식사 외에도 급주미(給酒米)라 하여 주조용으로도 사용하였으며 대두는 장류나 두부, 콩나물 제조용으로도 활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통 쌀 1석이 남자 성인 1사람이 1년에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쌀 960석이 유생 200명의 주식으로 모두 사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며, 장은 양현고에서 별도의 품목으로 조달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대두 역시 실제 필요량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을 지급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쌀이나 대두와 같은 곡식은 그 자체로 전량 소비되었기 보다는 다른 식재료를 조달하기 위한 재원으로든 전용(轉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조선시대 경제 유통에서 동전이나 지폐와 같은 명목화폐가 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 무렵부터였고, 쌀이나 배가 물품화폐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쌀과 대두가 이러한 물품화폐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주식비 외에 부식비에 해당하는 어염대(魚鹽代)로 균역청(均役廳)에서 전(錢) 994량을 지급하였고,

장(醬)은 양현고에서 직접 진배(進排: 나라에 물품을 바침)하도록 하였고 채소는 양현고의 관원이 구입하였으며, 간혹 윤달에는 경창(京倉)으로부터 쌀을 추가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술을 빚기 위한 용도로 급주미(給酒米) 19석도 매년 지급되었다. 성균관에서는 매월 6일에는 대별미(大別味)를 그리고, 24일에는 소별미(小別味)를 제공하였고, 正朝, 上元, 三日, 端午, 初伏, 流頭, 七夕, 九日, 冬至 등의 절기에도 별식을 제공하였는데, 급주미는 이 때 소요되었다. 정기적으로 주어진 별미 메뉴는 대별미(大別味)로는 쇠고기가, 소별미(小別味)로는 생선을 소금에 절인 좌반(佐飯)이 제공되었다<sup>28)</sup>. 대별미를 제공하기 위해 매달 소를 잡아 양탕(胖湯: 소위로 끓인 탕)이나 심자(心炙: 쇠고기 안심구이)를 제공하였다. 또한 명절에는 고기음식을 차려 유생들의 타향살이를 위로하였으며 더운 여름에는 얼음을 지급하였고 초복에는 개장국, 중복에는 참외, 말복에는 수박을 제공하였다<sup>29)</sup>. 또한,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는 방주(房酒)라 하여 각 방 한칸마다 일선(一簋: 다섯 잔 분량) 반에 해당하는 양의 술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관학 유생들의 입학, 알성(謁聖), 석존제(釋尊祭), 고유제(告由祭), 관학합소(館學合疏) 등의 행사나 제례가 있을 때마다 다음 <표 1>과 같은 품목들을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한다.

정기적인 지급 품목 외에도 성균관에서 유생수의 증원이나 적자 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시로 쌀을 지급하기도 하고 종종 국왕이 하사하는 연회나 반찬을 지급하여 유생들의 학업을 독려하기도 하였다<sup>30)</sup>. 수시로 하사된 품목의 예로는 세종 9년(1427)에 염진어석(鹽陳魚腊: 소금에 절인 생선포), 성종 23년(1492)에 어주진미(御廚珍味: 수라간에서 만든 진미), 영조 8년(1732)에 전복 3첩(貼), 팔소어(낙지) 5미, 대구어 20미, 건치(乾雉: 마른 꿩고기) 10수, 편포(片脯) 10장, 생치(生雉) 10수, 생어(生魚) 10미, 영조 18년(1742)에 생육(生肉) 등, 정조 7년(1783)에 어석(魚腊) 2架(시렁), 정조 8년(1784)에 진찬(珍饌: 임금의 하사하는 음식) 등이었다. 또한, 과일이 하사되기도 하여 영조 8년(1732)에 건시(乾柿: 꽃감) 3첩(貼), 호도 3두(斗), 백자(柏子: 잣) 3두(斗), 영조 18년(1742)에는 음력 5월에서 7월간에 얼음을 주어 이후 이를 정례화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sup>31)</sup>.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성균관에서 유생들에게 제공되었던 식재료 품목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 3. 성균관 급식재정 규모의 추정

성균관 내 식당은 조선초기 성균관 건물을 재정

<표 1> 성균관 행사 및 제례시 지급 품목 및 수량

행사 및 제례	지급 품목 및 수량
입학(入學)	· 유생 1인당 매일 쌀 4되(升), 대두 1되, 장 2합(合), 엽 1합, 석수어 2미(尾) 지급
알성(謁聖)	· 초도(初度)와 재도(再度) 습의(習儀) : 쌀 10석, 대두 2석 7두, 장 7두 5되, 엽 2두 5되, 석수어 25속(束) · 삼도(三度) 습의(習儀) : 쌀 25석 7두 5되, 대두 2석 7두 5되, 장 7두 5되, 엽 2두 5되, 석수어 25속 · 정일(正日) : 쌀 10석, 대두 2석 7두 5되, 장 7두 5되, 엽 2두 5되, 석수어 25속
석존제(釋尊祭)	문묘(文廟) · 쌀 30석 10두, 대두 5석 10두, 장 11두, 엽 5두 5되, 석수어 140속
	계성사(啓聖祠) · 쌀 10석, 대두 3석, 장 10두, 엽 3두, 석수어 70속
	사현사(四賢祠) · 쌀 8석 7두 8되, 대두 2석 1두 9되 5합, 장 6두 3되 9합, 엽 3두 1되 9합 5작(勺), 석수어 63속 9미
고유제(告由祭)	문묘(文廟) · 쌀 15석, 대두 5석, 장 1석, 엽 5두, 석수어 100속
	계성사(啓聖祠) · 쌀 10석, 대두 3석, 장 10두, 엽 3두, 석수어 70속
	사현사(四賢祠) · 쌀 8석 7두 8되, 대두 2석 1두 9되 5합, 장 6두 3되 9합, 엽 3두 1되 9합 5작(勺), 석수어 63속 9미
관학합소(館學合疏)	· 쌀 40석, 대두 9석 2두 7되, 장 1석 6두 5되 4합, 엽 10두 7되 7합, 석수어 215속 4미

출처 1) 『태학지(太學志)』 餼廩 供給.  
2) 『타지지(度支志)』 經費司 料祿部.

〈표 2〉 성균관 유생들에게 제공되었던 식재료 품목

구분	식품군	식재료 품목
주식	곡류	· 쌀(주식, 술) · 대두(잡곡, 두부, 콩나물 용으로 추정)
부식	어육류	· 쇠고기(소양탕, 안심구이): 매달 대별미 1회 · 좌반(소금에 절인 생선): 매달 소별미 1회 · 개고기(개장국): 초복에 제공 · 석수어(石首魚), 대구 등의 생어(生魚) · 생선포(魚腊), 소금에 절인 생선포(염진어석: 鹽陳魚腊) · 전복, 낙지 · 건치(乾雉: 마른 꿩고기), 생치(生雉: 꿩고기) · 젓갈
	해조류	· 황각(黃角) · 해곽(海藿: 미역)
	장류 및 염류	· 장(醬) · 소금(鹽)
	채소 및 과일류, 기타	· 각종 나물류 · 참외(중복에 제공), 수박(말복에 제공) · 꽃감, 호두, 잣 등 · 얼음(하절기에 지급) · 술(월 2회 지급)
특별식		· 명절 별공(正朝, 上元, 三日, 端午, 初伏, 流頭, 七夕, 九日, 冬至 등의 절기 음식) · 급주미(給酒米) · 진찬(珍饌: 임금의 하사 음식)

출처) 안상원, 『성균관 양현제정 연구』 pp.72-80. 논자 재정리

비하고 명륜당 등 주요 건물과 함께 신축되었으며 200명에 달하는 유생들의 급식을 위해서는 실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였고 성균관 내에 양현고를 설치하여 성균관의 재원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양현고의 주요 재원은 토지와 노비였으며, 양현고에 소속된 노비는 약 400명으로 유생의 식사 조달과 사환, 수위 역할 등 각종 잡역을 맡았고, 외거노비는 신공(身貢)을 바쳤다. 조선 초 양현고의 재원은 주로 토지인 학전(學田)이 중심이 되었으나 후기로 갈수록 토전의 침탈로 세가 줄어들고 노비 수의 증가로 노비의 신공(身貢)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sup>32)</sup>.

조선초기 양현고의 조세 재원이었던 토지에 관한 최초의 기록으로는 태학지 토전(土田)에 ‘태종(太宗) 7년(1407년) 정해(丁亥) 학전(學田) 만(萬)묘를 성균관에 하사하여 제례에 받들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묘는 6,000척(尺)<sup>2</sup>=259,8336m<sup>2</sup>=78.6평이며 10,000묘는 약 78만6천평에 달하는 토지이다. 당시 이 토지는 성균관 제례용 명목으로 하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일종의 성균관 소요경비를 충

당하기 위한 재원 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태종 13년(1413년) 실록 자료에 의하면 학전은 이후 좀더 증가하여 모두 1000결(結)(1결은 3천평이므로 3백만평)에 달하는데, 학전은 토전(土田) 뿐만 아니라 어장(魚場), 섬 일대의 수전(水田) 등도 확보하였다. 실록에 의하면 학전에서의 수입만으로는 성균관의 유생들을 위한 경비를 충족하기 어려워 어장 두 곳을 양현고에 소속시켰으며, 전라도·충청도의 해조류와 경상도·강원도의 미역을 일정 수량 상납케 하자고 청하였다고 한다<sup>33)</sup>. 당시 성균관 대사성이던 권우(權遇)가 성균관의 재정을 위해 사용하던 토지의 수입만으로는 유생들의 공과가 어려우므로 이를 보충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는 기록이 다음과 같이 남아 있다.

성균 대사성(成均大司成) 권우(權遇) 등이 상서하였다. ... 양현고(養賢庫)에 속한 전지(田地) 1천 결(一千結)은 해마다 손(損)이 많고 실(實)이 적어서 그 때문에 제생(諸生)들을 공역(供億)하는 것이 나물[菜]과 국[羹] 이외에 다른 반찬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어량(魚梁) 한두 곳을 양현고(養賢庫)에 오로지 속하게 하여, 전라도·충청도에서 생산되는 황각(黃角: 해조류의 일종)과 경상도·강원도에서 생산되는 해곽(海蠶: 미역)을 요량하여 숫자를 정하고,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절기(節氣)마다 상납(上納)하게 하는 것으로써 향식을 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세종 때 200명에 이르는 성균관 유생들의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초기에 1,035결을 주었다가 세종 13년(1431년)에 전지(田地) 965결을 추가해, 모두 2,000결의 심학전(瞻學田)을 운영하게 하였다. 약 600만평에 달하는 성균관의 전답에서의 수입은 평상시 성균관 유생 200명을 1년간 공궤할 수 있는 규모였다.

성균관의 학전은 조선왕조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세종 15년 400결, 중종 6년 100결, 중종 13년 100결, 명종 2년 15결 등이 지급되었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있어서 성균관 양현고의 재정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sup>34)</sup>. 하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을 겪으면서 전반적인 국가 재정의 위기와 함께 성균관 재정 역시 파탄을 피할 수는 없었다.

선조 34년(1601)에 문묘가 재건되고 선조 39년(1606)에 명륜당이 재건되었으나 양현고는 인조 4년(1626)에서야 부활되었고 효종 대에 이르러서야 양현고의 기능이 정상을 찾게되어 교육재정이 개편, 호전되었다. 효종은 전쟁의 혼란 속에 궁가(宮家)에서 점거해오던 토지들을 성균관 재정에 다시 귀속시켰는데, 기록에 의하면 경기도 일부 섬(김포군의獨島, 인천부 勿溜島, 喬桐府 甫乙海), 전남도 연해의 여러 섬 일대(부안현 위도, 영광군 角里島 鶴島 紫雲坪 於義島 鮑作島 水島, 나주목 都草島 臨子只 영암군 楸子島),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의 水田과 田 350여결(結) 등을 성균관에 되돌렸다고 되어 있다<sup>35)</sup>. 이러한 성균관 양현재원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방법은 해당 읍에서 걷어서 상납하거나 직접 사람을 보내어 징수하기도 하였으며 태학지(太學志)의 기록에 의하면 정조 초기 학전에서 거두어들이는 세전(稅錢) 규모가 약 1120兩에 달하였다고 한다<sup>36)</sup>.

시대별로 성균관에 수용되었던 유생 수나 당대의 교육재정여건에 따라 달랐을 것이지만 양현재정에

관한 실록<sup>10)</sup>에서의 기록이나 성균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서인 태학지<sup>9)</sup> 및 성균관 재정을 담당 하던 호조에 관한 기록을 담은 탁지지<sup>21)</sup> 등으로부터 대략적인 규모를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조선전기 성균관 유생들의 식비나 1년 재정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단서는 앞서 서술하였던 세조 실록의 기록에서 유생 200명을 1년간 공궤하는데 960석이 소요되었다는 기록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쌀 960석(石, '섬'이라고도 하며 쌀 1섬은 144kg에 해당되는 무게임<sup>37)38)</sup>)은 현 시세로 약 276,480,000원(쌀 kg당 2,000원 기준)에 해당되는 액수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는 부식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부식비까지 합하면 연간 급식재정은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선 후기 무렵의 급식비용은 교육재정에서 다소 안정을 보였던 영조 대의 양현 재정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생이 입학하게 되면 1인당 매일 쌀 4되(升), 대두 1되, 장 2합(合), 염 1합, 석수어 2미(尾) 지급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쌀 5.6kg, 대두 1.4kg, 장 280g, 염 140g, 석수어 2마리 정도로 환산되는 양이다. 이를 현 시세로 환산해보면 쌀 11,200원(kg당 2000원), 대두 5,600원(kg당 4000원), 장 280원(100g당 100원), 소금 140원(100g당 100원), 석수어 1,400원(마리당 700원) 합계 18,620원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안<sup>39)</sup>에 의하면 영조 대의 성균관 양현 재정의 1년 총 경상규모를 모두 전(錢)으로 환산하였을 때 1년 경상규모가 약 50,204량에 해당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쌀 1석은 약 15량이며, 현시세로 약 30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환산해본다면 이는 약 1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안<sup>40)</sup>은 성균관 재정의 47% 가까이는 유생들의 급식비로 충당되었으며, 22%는 관원의 보수로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석전제(釋奠祭)나 학용품, 기타 비용으로 쓰여졌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연간 4억7천만원 정도의 재원이 성균관 유생들의 급식에 소요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당시 성균관은 년중 4개월의 방학과 4일씩의 휴일을 제하고 약 208일간 식사를 하며 그 중에서도 음력 봄 2월의 춘추석전(春秋釋奠)과 가을 8월의 추기석전(秋期釋奠)의 사이에만 점심이 제공되었으므로 약 546회의 식사가 제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sup>41)</sup>. 따라서, 연간 성

군관 유생의 정원을 200명으로 할 경우 1인당 한끼의 식비는 약 4,300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정원이나 방학 기간의 변동을 감안하면 성균관 유생 1인당 식비는 1끼에 대략 4,000원~5,000원 정도의 예산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각지에서 상납한 반찬 거리를 포함하면 실제 식비는 이를 더 초과하였을 것이다.

### III. 결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 성균관 급식 운영에 대한 제반 내용과 이에 사용되었던 재정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반중잡영, 태학지, CD-ROM 조선왕조실록 및 성균관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성균관에서 이루어진 유생들의 급식 제도, 식당의 운영 관리, 급식 재정의 조달 및 관리 등은 매우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 하에서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성균관 유생들의 급식 및 제반 운영에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 양현고를 설치하였으며 양현고는 성균관 식당의 급식을 관리하는 기구 역할도 함께 수행하였다. 양현고 재정의 회계는 호조의 관리 감독을 받았으며 호조에서 지급한 물품에 대한 회계 보고, 정기적인 재고조사, 인수한 물품에 대한 기록을 의무화하는 급식 관리제도가 있었다.

2. 양현고의 재원은 주로 토지인 학전과 노비의 신공에 의해 조달되었으며 전국의 학전에서 조달된 재원을 바탕으로 성균관에 정기 및 수시로 현물을 지급하였다. 특히 성균관 유생들의 급식에 사용된 쌀, 대두, 찬 등은 양현고에서 연간 계획을 세워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으며, 세조 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유생 200명의 1년간 공궤하는 식비로 쌀 960석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영조 대의 기록에 의하면 성균관 수용 인원 126명을 공궤하기 위해 큰달(大朔)에는 미(米) 83석 2두, 대두(大豆) 25석 3두, 작은달(小朔)에는 미(米) 80석 5두, 대두(大豆) 24석 5두로 연간 미(米) 988석, 대두(大豆) 302석 6두를 호조에서 양현고에 지급하였다.

3. 세조 실록에 의해 추산한 바에 의하면 유생 200명에 대한 연간 주식비는 쌀 960석 즉, 약

276,480,000원에 해당되는 규모이며, 영조 대의 기록에서 유생 1인당 매일 지급한 쌀 4되(升), 대두 1되, 장 2합(合), 엽 1합, 석수어 2미(尾)의 비용은 약 18,620원 정도에 해당되고, 성균관 양현 재정의 1년 총 경상규모를 약 50,204량으로 추정하였을 때 연간 4억7천만원 정도의 재원이 성균관 유생들의 급식에 소요되었고, 정원이나 방학 기간의 변동을 감안하여 볼 때 성균관 유생 1인당 식비는 1끼에 대략 4,000원~5,000원 정도가 소요되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이상과 같은 고찰 및 분석결과는 조선시대 성균관에서의 급식이 오늘날 근대화이후의 본격적인 형태의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행해진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원형과 이에 대한 관리 방법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 학교 급식의 역사가 한국전쟁 이후 외국의 원조로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그보다 500여년이나 앞선 조선시대부터 이미 체계적인 학교급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조선조 전대에 걸친 역사적 기록에서 성균관 식당 운영에 대한 정확한 사료가 풍부하지 않아 보다 급식운영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한 고찰이 다소 제한적이고 재정 규모 추산에서도 오늘날의 가치를 적용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나, 성균관 급식의 전반적인 재정 규모와 운영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교급식관리의 역사적 원형을 밝히는데 그 가치가 있을 것이다.

### ■ 주

주1) 탁지지(度支志)는 정조 12년(1788) 戊申에 박일원이 왕명을 받들어 호조의 제반 사례나 업적을 후세의 참고자료로 삼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된 책이다. 수록 내용의 대부분이 17세기 인조대 이후의 것으로, 조선 후기 경제제도의 변화 및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1749년(영조 25)에 이루어진 탁지정례 度支定例와 함께 당시 국가 재정 및 사회·경제사 연구의 기본 자료이다.

### ■ 참고문헌

1) 김대용, 『조선초기 교육체제의 성격에 관한 연구』 1992,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2) 장재천. 『조선전기 성균관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의 사회적 변화』 교육학연구, 39(1), 2001, pp.295-312.
- 3) 한영우. 『조선전기 사회사상 연구』 지식산업사, 1989, p.13.
- 4) 장재천. 『조선조 성균관 교육과 유생문화』 아세아문화사, 2000, p.52.
- 5) 동상서. p.52.
- 6) 동상서. p.52.
- 7) 안상원. 『성균관 양현 재정 연구』 재동문화사, 1975, p.23.
- 8) 이민홍 역주. 『완역 반중잡영. 조선조 성균관의 교원과 태학생의 생활상』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9, p.3.
- 9) 『태학지』 율곡문화원, 1970.
- 1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CD-ROM 국역본 『조선왕조실록』 서울시스템주식회사, 1995
- 11) 윤기. 『무명자집(반중잡영)』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7.
- 12) 장재천.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문화 일고」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문화학회, 제 11집, 2001, pp.258-289.
- 13) 상계서. 『조선조 성균관 교육과 유생문화』
- 14) 상계서. 『성균관 양현 재정 연구』
- 15) 『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 9월 己卯.
- 16) 안상원. 『성균관 양현 재정 연구』 재동문화사, 1975, p.23.
- 17) 상계서. 『조선조 성균관의 교원과 태학생의 생활상』 p.24.
- 18) 『태종실록』 권 23, 태종 12년 5월 甲午.
- 19) 한국역사정보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 20) 상계서. 『성균관 양현 재정 연구』 p.67.
- 21) 박일원(選). 『탁지지(度支志)』 卷一 官制部, 서울대학교 고전간행회, 1967.
- 22) 상계서. 『성균관 양현 재정 연구』 p.59.
- 23) 동상서. p.59.
- 24) 상계서. 『조선조 성균관의 교원과 태학생의 생활상』 pp.36-37.
- 25) 『세조실록』 권 12, 세조 4년4월 辛巳.
- 26) 상계서. 『탁지지(度支志)』 經費司 經用部.
- 27) 상계서. 『태학지(太學志)』 餼廩 供給.
- 28) 상계서. 『조선조 성균관의 교원과 태학생의 생활상』 pp.45-48.
- 29) 동상서. pp.49-51.
- 30) 상계서. 『성균관 양현재정 연구』 pp.72-80.
- 31) 상계서. 『태학지(太學志)』 餼廩 供給.
- 32) 상계서. 『조선조 성균관 교육과 유생문화』 pp.66-67.
- 33) 『태종실록』 권 25, 태종 13년 6월 丁丑.
- 34) 상계서. 『성균관 양현재정 연구』 p.69.
- 35) 동상서. p.66.
- 36) 동상서. p.70.
- 37) 두산세계대백과 엔사이버. <http://www.encyber.com/>
- 38) 농림부. 「곡류용량중량환산표」 『농림통계연보』.
- 39) 상계서. 『성균관 양현재정 연구』 pp.80-85.
- 40) 동상서. p.85.
- 41) 동상서. p.85.